

Onesimus Newsletter

(오네시모 선교회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시 27:1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 whom shall I fear?”

Psalms 27:1



12 / 2024

목차 Table of Contents

인사말 ~~~~~	2
Greeting ~~~~~	3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최준성 목사) ~~~~~	4
Father's Love Towards Us (Pastor John Choi) ~~~~~	9
감옥방문을 마치고 (최준성 목사) ~~ 고도관님, 제발 좀 도와 주세요 ~~	12
Prison visiting (Pastor John Choi) ~Officer, Please Help Me~	14
Letters (Onesimus School of Theology Students) ~~~~~	17
결단의 기도 ~~~~~	21
기도 제목 ~~~~~	22

인사말

언젠가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열 살 먹은 아이에게의 1 년은 자신의 인생의 10 분의 1 로 길게 여겨지고, 50 살을 먹은 사람에게는 그 1 년이라는 시간이 자신 인생의 50 분의 1 로 짧게 생각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 말에 지금 이 글을 읽는 형제들 중에 동의하지 못 할 분이 많겠지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을 하나씩 돌이켜 생각해 보면 후딱 지나간 것 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24 년도 처음에는 이런 저런 마음가짐으로 첫 발 걸음을 떼어 갔지만, 이제 달랑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지금에서 돌아보면 무엇 하나 움켜 잡은 것 없이 주름살만 늘어난 것 같아 아쉬움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시 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러다가 우리가 알지 모르는 그 날, 덜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단 맞지는 않아야 할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다시 한 번 웃기를 가지런히 여미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여서 오늘 하루를 만들고, 오늘 하루가 또 쌓여 일주일 이 되고 한달, 한 해가 됩니다.

가는 세월을 손가락으로 꼽고 그런 저런 보내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기왕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의미와 보람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면 좋 겠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길잡이인 성경 말씀을 늘 가슴에 두고 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날들이 쌓여 우 리의 인생은 물론, 이 다음에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도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는지요?

오네시모 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의 사역자들을 위해 늘 기억하고 또 격려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참 감사 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껏 작은 소식지를 주님 이름으로 만들어서 보내며, 글로나마 짧

게 인사를 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게, 따뜻하게 지내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감사합니다
최준성 목사

~~ Greetings ~~

I am reminded of an article I once read. It said that a year seems long to a ten-year-old, as it represents a tenth of their life; yet to a fifty-year-old, a year is only one-fiftieth, making it feel much shorter. Time truly flies. Some of you reading this may not fully agree, but if we reflect on the passing moments, it certainly seems as if they've slipped by quickly.

As 2024 began, we set out with various resolutions and intentions. Now, with just two months remaining, it feels as though the only thing that's grown is the number of wrinkles on our faces, leaving us with a lingering sense of unaccomplished goals.

Psalm 90:10 says, "Our days may come to seventy years, or eighty, if our strength endures; yet the best of them are but trouble and sorrow, for they quickly pass, and we fly away." Sometimes, when I consider that unknown moment when we stand before God, I feel urged to realign my thoughts and actions, hoping to be found in a place of grace.

Today is what builds this day, and one day builds up to a week, then a month, and then a year. Instead of letting time slip through our fingers or letting it pass without purpose, wouldn't it be wonderful if we could fill our lives with meaning, fulfillment, and hope? That path lies in keeping close to our hearts the guide God gave us—the Word of God—and in living it each day. When we build our lives on that foundation, our days will lead to a life recognized not only by those around us but ultimately by God when we stand before Him.

It's been a while since I last greeted you, and I wonder how each of you has been during this time. I thank you deeply for always remembering and praying for Onesimus Ministry and for all those serving in its ministry. I am grateful and send blessings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is small newsletter has been created with care, as a brief greeting in the Lord's name. May you stay healthy and warm in this colder season, and above all, may the grace God provides keep our hearts warm and strong.

Blessings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nk you!!
Pastor John Choi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최준성 목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삼하 18:5, 18:28-33)

“그 때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라 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새번역 성경)

언제, 어느 곳에서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맘에 평안을 주는 단어가 아버지, 엄마라는 말이 아닌 가 합니다.

오래 전에 한국 뉴스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나이 40을 훌쩍 넘긴 아들이 일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마약과 술을 입에 달고 사는데, 마약과 술을 하는 날에는 홀로 남은 늙은 어머니에게 갖은 욕설을 일삼고, 나중에는 술, 마약을 살 돈이 없으면 돈 내 놓으라고 노모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는 노모를 몽둥이로 폭행까지 합니다. 그 날도 술과 마약으로 완전히 정신

줄을 놓고 술을 살 돈을 요구하는 자신을 훈계하는 노모를 죽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나서,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온 몸에 피를 흘리며 그 늙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죽어가며 이야기 합니다. “아들아! 옷에 피가 묻어 있어, 그대로 나가면 경찰에 붙잡혀, 옷 갈아 입고 나가” 라고 간신히 말하며 그 늙은 어머니는 피를 많이 흘려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해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볼 만한 가족의 다정하고 인정이 많은 그런 문화가 바뀌어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 독립된 개인적인 인생으로 분리되어, 간섭 없이 혼자만의 인생이 되어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코비드라는 큰 사건을 지나면서 그 경향은 더 심각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없신여기며, 속을 썩이고, 멀리한다 할 지라도 그런 자식을 영원히 미워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된 마음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는 유대 왕 당시 헤브론에서, 또 통합 이스라엘 왕일 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무려 19 명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다른 자식들 사이에서 서로 반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왕자들 간 서로의 권력 다툼으로 번지게 됨으로, 급기야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엄마가 다른 형제인데, 그래서 압살롬은 이복 형인 암논을 그럴듯하게 자신의 잔치에 초대해서 오게 한 뒤 그를 죽입니다. 이것이 압살롬 반역의 발단입니다.

압살롬은 인물도 잘나고 훌륭하며, 또 머릿 결이 아주 좋아서 길게 묶고 다닌 듯 싶습니다.

그가 형제를 죽이고 도망을 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게 되는데, 많은 우리가 그를 따르며 칭찬하고, 압살롬을 추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다윗 왕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다윗 편에서 있는 장군들이 아직 많이 있고, 다윗 이 마음 만 먹으면 얼마든지 압살롬과 그 일당을 평정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 그가 아직 작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고, 평생을 전쟁 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런 다윗이 힘이 없어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을 하는 오직 한가지 이유는 그 상대가 자신의 아들 이기 때문입니다.

잘 낫든 못 낫든 그 어떤 자식이든,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참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 자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이 인내하십니다.

이제 마참내 두 진영에서 서로 동족간에,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추종 세력간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그 와중에도 자기의 장군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 하나?” 그런 천하의 패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의 안전을 늘 걱정합니다.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는 자신들의 장군들에게 다윗은 신신당부를 합니다. “왕인 나를 봐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너 무 심하게 다루지 마라” 라고 부탁드립니다. 다윗왕 쪽의 모든 장군과,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대적으로 생각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대적하기 보다 대신 도망의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전장에서 아들을 죽이면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고, 도망하지 않아 전쟁에서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만드는 것이기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아들의 행위는 지금 다윗이 보기에도 맘이 편치 않지만 그러나 더 악한 아들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버린 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불효자 자식을 만드는 것도 효자를 만드는 것도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시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자처럼 보게 하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결국 죽습니다,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반란과 역모를 꾸민 반란 수괴를 통쾌하게 죽이고도, 다윗의 장군들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아버지 다윗에게 차마 하지 못합니다.

33 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죽은 아들을 향한 통곡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 부모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만하고, 속을 썩이고, 그래서 내가 지긋지긋해서, 이제 너를 버리고, 너와 관계를 끊고, 너를 자식이라 더 이상 말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절대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나의 왕국을 전복하여 아버지인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아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일 놈이라고, 못 된 놈이라고. 패륜아라고, 원수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대신 내가 죽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나를 죽이려 한 아들과의 관계를 무우 자르듯 청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파 내는 것과 같은 배신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비록 동족간의 전쟁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도, 이제 왕권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도, 다윗 그에게겐 도무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아들의 죽음 앞에 정신을 잃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면...내가 대신 죽었더면...이것이 아버지 사랑, 부모 사랑의 절정입니다. 고통 받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절대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모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도 그 아들, 그 자식을 영원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친히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었던 저주의 십자가를 직접 자원해서 지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실제로 죽어 주셨습니다.

오늘 죽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하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 땅의 범죄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 아버지의 재산을 내어 놓으라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결국 아버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돈 다 해줄 테니 제발 인간이 되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외면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 내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맘대로 살다가, 결국 유산으로 쟁취했던 많은 돈을 다 날려 버리고, 노숙자가 되어 갈 데 없어 이리 저리 방황을 하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자식도 맨발로 뛰어나가 반갑게 맞아 주는 것뿐 아니라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동네 잔치까지 베풀어 주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도 우리는 눅 15 장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빚댄 우리를 향한 아버지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8 장 28-33 절 본문에 나타난 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압살롬의 행위를 봅니다. 그 아들의 잔인하고, 악독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의 그 모습 안에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죽을 만치 추악한 그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하신 주님,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손으로 또 다시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내 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며 살아 가지는 않은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 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아들의 큰 잘못도 측은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아들의 잘못됨을 당장 징계의 손을 들고 징벌 할 수 있지만, 그를 측은히 여기며 용서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과 공경으로 보답하고, 또 그런 우리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ather's Love Towards Us Pastor John Choi

Sharing God's Word Together

"The king commanded Joab, Abishai, and Ittai,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Absalom for my sake.' And all the troops heard the king giving orders concerning Absalom to each of the commanders."

—2 Samuel 18:5, 18:28-33 (NIV)

There are few words that touch the heart and bring peace like "father" and "mother," regardless of when or where they are heard. I recall reading a tragic story in the news some time ago about a son in his 40s who didn't work but lived each day attached to alcohol and drugs. When he was under their influence, he would verbally abuse his elderly mother, and, at times, when he ran out of money for drugs and alcohol, he would even resort to violent threats and eventually to physical violence. On one such day, intoxicated and high, he savagely beat his mother for scolding him about his behavior. As he prepared to leave, his mother, covered in blood and near death, whispered to him, "Son, there's blood on your clothes. Change before you go, or the police will catch you." She bled out shortly afterward.

Times have changed, and many no longer embrace the closeness that once defined family, preferring instead a more independent life free from family obligations. This trend has only intensified following COVID-19. Yet, no matter how much children hurt or distance themselves from their parents, a parent's love remains steadfast. This is the love of a father's heart and the compassion that God holds for us.

Today's passage shares the story of David and his third son, Absalom. David, the King of Israel, had a total of 19 sons, which eventually led to rivalry and division among them, often driven by differing maternal lineages. This escalated to a power struggle in which Absalom ultimately betrayed his father, David, in an attempt to seize the throne.

Briefly summarized, David's firstborn, Amnon, raped Absalom's sister, Tamar. Enraged, Absalom plotted revenge by inviting Amnon to a feast, only to have him murdered there. This event set the stage for Absalom's rebellion. Absalom fled but continued to rally support for himself, attracting

a significant following who praised and admired him. Eventually, he led a full-scale rebellion, forcing David to flee. Although David had many loyal generals who could have easily overpowered Absalom's forces, David did not retaliate.

It was not because David lacked power; after all, he was the young man who, with God's strength, had defeated Goliath and had been a skilled and seasoned warrior his entire life. No, David fled because his opponent was his own son. The heart of a parent is inevitably vulnerable before their child, no matter how righteous or rebellious that child may be. In the same way, our heavenly Father continually loves and bears with us, His children.

The two camps eventually clashed in a fierce battle, but even then, David's primary concern was Absalom's well-being. Despite his son's rebellion, David repeatedly asked his generals, "Is Absalom safe?" His fatherly heart was consumed with concern for the son who sought to kill him. Before the battle, David had even requested, "Please, be gentle with my son Absalom." David's generals and soldiers may have seen Absalom as a traitor and a threat, but David saw only his son.

Ultimately, Absalom was killed. Though he was the leader of a rebellion, David's generals could hardly bear to tell David of Absalom's death. David had fled not out of fear, but out of love, to avoid becoming either the father who killed his son or the father killed by his son. He left it all in God's hands, even if it meant leaving his own throne.

This is the heart of a father—a heart that endures pain and betrayal for the sake of his child. No matter how flawed his children may be, he sacrifices everything to save them. In a similar way, God allows us to see His own love through our families, giving us fathers and mothers who carry a portion of His love.

The Bible says in 2 Samuel 18:33, "The king was shaken. He went up to the room over the gateway and wept. As he went, he said: 'O my son Absalom! My son, my son Absalom! If only I had died instead of you—O Absalom, my son, my son!'" David's grief for Absalom's death reflects the anguish of a parent for a wayward child.

When David lamented, "If only I had died instead of you, Absalom," it was the ultimate expression of sacrificial love. This selfless love mirrors God's heart, for while human parents cannot literally die to redeem their children

eternally, God did just that for us. Jesus bore the cross, experiencing unimaginable suffering and death to pay for our sins and to offer us eternal life. David's heartache over Absalom gives us a glimpse into the depth of God's love for all sinners.

The story describes a son who, during his father's lifetime, demanded his inheritance and defied his father. Despite the father's plea for him to become a better person, the son ignored his father's heart and took the money. He lived freely, doing as he pleased, but eventually squandered all of his wealth and ended up homeless, wandering aimlessly with nowhere to go. Ultimately, he returned to his father, who not only welcomed him back with open arms, running out to greet him, but also held a celebration for his return. This parable of the prodigal son, which we know from Luke 15, illustrates the heart of God the Father toward us, mirroring the love and forgiveness a parent has for their child.

Through David's heartache and loss, we see our own faults reflected in Absalom, and we realize the gravity of God's grace. Although we repeatedly fail, disobey, and even unknowingly wound the heart of God, He extends forgiveness and love without end. The forgiveness David showed Absalom, though his son's actions deeply pained him, reflects God's holy, parental love.

May we respond to God's love with lives marked by obedience, respect, and devotion. May our lives be set apart, bringing honor and praise to our eternal Father. I pray this blessing upon each one of you in the name of the Lord.

God
Loves
you

2024 6 월 방문을 마치고,

“이 사람은 방문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웹사이트에서 다 확인했고, 우리의 방문이 거절될 아무런 이유가 우리에게겐 해당이 되지 않았고, 또 만약 미리 알았다면 조치를 하고 왔을 텐데, 당연히 방문이 될 줄 알았지 이런 경우가 너무 황당한 데, 어떻게 방문이 허락되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말 할수 없지만, 이 사람 방문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모든 방문이 섰다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범죄 레벨이 높아서 원래 방문이 차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방문이 될수 잇도록 좀 도와 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발 돌아 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형제 한 사람의 방문을 위해서 20 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막 도착했습니다. 지금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그런 이유로 방문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 “.....” “.....”

“제발 좀 도와 주세요”

“그럼 교도소 목사 전화번호를 줄 테니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이 허락을 하면 그 사람의 책임하에 방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쥐고 종종 걸음으로 차에 돌아와 급히 전화를 돌린다. 그러나 몇 번이고 도무지 전화를 받질 않는다. 결국 다급하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전화는 되돌아 오질 않았다

아 !! 그럼 이젠 어찌 해야 하나? 만나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또 그 먼 길을 그냥 되 돌아 가야 하나?

주님! 이렇게 먼 길을 힘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코 앞에서, 도무지 상상도 못 할 장애가 우리 앞에 떡 하니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허탈하고 또 한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다시 되돌아 가서 또 한번 부탁을 해 보자는 마음이 떠 오른다.

그러나 이내 마음 한 켠엔, 다시 부탁해도 소용없을 걸! 여기 행정 처리가, 한번 안 되는 것을 다시 융통성을 보여 허락해 주지 않아, 그냥 헛수고 말고 되 돌아 가는 게 좋을 거야!! 망설여 진다

다시 기도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 번 부딪혀 보고 또 안되면 그 때 또 생각하자! 발길을 다시 방문 신청 데스크로 향한다.

유난히 그 출입문은 천근 만근 쉽사리 잘 열리지도 않는다. 덩그러니 높은 천장의 넓은 라비는 아무 발길이 끊겨 적막하다. 다시 쭈뼛 쭈뼛 땀 땀 경찰관 앞으로 다가간다. 땀 땀 경찰관은 어! 이 사람 아직 되돌아가지 않았네 하는 귀찮은 눈초리로 한 번 힐끗 보더니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유리벽과 대화 하듯 막연하지만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부탁 해 본다.

“우리는 지금 그 형제 한 사람의 방문을 위해서 20 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막 도착 했습니다”

“만약 방문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면 우리의 불찰입니다만 한 번만 더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방문을 기다리는 그 형제나, 방문을 위해 이렇게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참 귀중한 시간이니 한 번만 부탁을 드립니다”

“.....” “.....” “.....”

담당자는 일언 대꾸도 없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려나 보다. 체념한 마음과 동시에 뒷 편 어렴풋이 들려오는 한가닥 빛 줄기 같은 환한 소리를 우리는 분명 들었다.

“오늘은 그 어떤 방문도 안되나요?” “네! 오늘은 교도소 긴급 미팅이 있어서 모든 방문이 취소되고, 또 그 형제는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한 번 저 사람들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싸인을 할게요” 그 동안 저 멀리 뒷 자리에 오랫동안 무심히 앉아 있던 여자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넨다

“오케이! 당신들의 아이디어를 주시겠습니까?”

“아 !! 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허락이 된 방문은,

1.긴급 미팅으로 모든 방문이 일절 허가되지 않은 기간에도,

2.그곳 규정에 일주일에 딱 두 번만 허락된 방문을 세 번이나 방문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었고,

3.방문 시간을 훨씬 초과하도록, 또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특별히 감사가 충만했던 방문 일정이었다

(잠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 중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마음 먹는다.

Officer, Please Help Me !!

Pastor John Choi

After Our Visit in June 2024“

This person is not permitted for visitation.”

“We checked everything on the website before leaving, and we had no reason to believe our visit would be denied. If we’d known, we would have made the necessary arrangements in advance. It’s shocking to hear this now. Is there any way we can still be allowed to visit?”

“I’m afraid I can’t do anything further. This person cannot be approved for visitation. And given their high crime level, this individual’s visits are particularly restricted.”

“What can we do?”

“Sorry, there’s nothing I can do. You’ll have to leave.”

“We’ve driven over 20 hours just to visit this one brother, and to deny us entry without prior notice is unreasonable. Please, help us.”

“... ..”

“Please, we’re asking you for help.”

“Alright, I’ll give you the prison chaplain’s number. If you can reach him and he approves the visit, we’ll allow it under his responsibility.”

I took down the number and hurried back to the car to call. But no matter how many times I tried he didn’t answer. In the end, I left a voicemail, urgently asking for his assistance. Time passed, but no call came back.

Now what? Do we turn back after coming so far without accomplishing anything?

Lord, we came this long way with joyful hearts, but now we find this unexpected barrier right before us. What should we do? I pray for Your guidance.

Disheartened yet filled with a sense of urgency, I felt a stirring within to go back and ask again. But another part of me thought, What’s the point? Once an administrative process is halted here, there’s no flexibility. Perhaps it’s best just to leave. I hesitated.

I prayed again, Lord, what should I do? I’ll try once more, and if it still doesn’t work, I’ll give up.

I headed back to the visitation desk. Today, that door seemed heavier than ever, resisting my efforts to open it. Tentatively, I approached the officer. He gave me a brief look, as if surprised I hadn’t left, and then went back to his work, ignoring me entirely.

Though I was speaking to what felt like a wall of glass, I gathered myself and asked once more.

“We drove over 20 hours to visit this one brother. If we missed any pre-warning about the visit restriction, it’s our mistake, but please, would you reconsider just once? This visit is deeply meaningful for him, as well as for all of us who have traveled here. Please.”

“... ..” Silence stretched between us. The officer said nothing.

Perhaps this was the end. My heart grew resigned, but in that silence, a faint, hopeful voice reached us like a bright ray of light.

“Is no one allowed to visit today?”

“Yes, there’s an emergency meeting at the prison today, so all visits have been canceled. And this particular person is on the restricted list.”

“Oh, I see. But please, let these people through. I’ll sign off on it.”

It was the voice of a senior officer, who had been sitting quietly in the back all along. She gave the directive, and the officer at the desk turned to us with a smile.

“Alright! Can I have your IDs?”

“Yes! Thank you so much!”

Through the Lord’s intervention, our visit was granted, even though:

It was a period when all visits were officially canceled due to an emergency meeting.

Regulations allowed only two visits per week, yet we were permitted a third visit.

We were granted an extended time to meet with the brother in a special location.

It was an incredibly grace-filled visit, for which we were profoundly thankful.

Proverbs 3:6 says,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This experience reminds us once more to recognize the Lord’s hand in the circumstances around us each day and continually seek His guidance and inspiration.

from
IMPOSSIBLE
to
I'M POSSIBLE

Letters from Onesimus School of Theology students

I want to thank you all for your ministry. I have benefitted so much from these lessons, helping me to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2 Peter 3:18)

I apologize for taking so long to complete my lessons. I want to do my best and my time here is very structured. To attend a school such as yours outside of prison would cost a small fortune, so again, thank you. I work here in the furniture shop refinishing old furniture to make it like new, just as God is doing with me.

I make \$23.75 a week which is enough, believe it or not, for all my needs. Enclosed you will find \$30 as an offering. It may not be much for you, but it is to me, and God can multiply it.

-from New Hampshire Correctional Facility-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study at Onesimus School of Theology. During the last couple years, I have grown so much in my Christian Walk and have gained so much knowledge.

-from Maryland Correctional Institution-

Thank God for all of you at Onesimus Ministry. I am growing daily by studies each course from Onesimus School of Theology I the Christ. I am working on Proverb now. I am on page 14 now. A lot of questions but for sure Lord has a reason for it and I am growing daily....

-from Tyger River Correctional Institution in S. Carolina

Thank you for giving me the instructions to improve my essay in the future, and for taking the time to give me all the feedback and encouragement. The Lord continues to guide you and give your all your need to fulfill your ministry....

-from SCI Benner Township in Pennsylvania

감사합니다

어떤 부자(父子)의 이야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 속의 길을 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몇 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는 반갑게 만났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그 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이 말에 아버지는 궁금해서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뿌리에 걸려 말이 세 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하자구나.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구나."

우리는 이 부자의 대화를 통해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한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시대이다.

십대 성 매매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용돈을 쉽게 구할 수 있기에 그런 짓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부잣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 좋은 상품 사고 싶어서란다. 그 아이들의 입에는 도무지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다. 하기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부터 회복하면 어떨까 싶다. 소아 암 병동에 심방 갔다가 돌아오면서 요즘

은 학군 정도가 아니라 학원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는 기사를 보면서 씩씩한 느낌이 들었다. 머리가 다 빠져버린 헬썩한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도 두 다리 멀쩡하게 딛고 씩씩하게 돌아오는 우리아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는가?

다녀오리라는 말을 남기고 간 남편이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이 감사하지 않는가?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 텐데, 행복하자고 사는 것인데 꼭 그렇게까지 악을 쓰며 살아야만 하는가 싶다.

작은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 이것이 행복의 시작일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옛날 나무꾼과 그의 딸이 살고 있었다. 마음씨 착한 소녀는 숲을 몹시 사랑하여 항상 숲 속에 나가 요정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날씨가 추워서 나갈 수 없는 날엔 요정들을 위해 전나무에 작은 촛불을 켜놓곤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딸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 깊은 숲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간 나무꾼 아버지는 그만 길을 잃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불빛이 반복해서 보여 집까지 무사히 다 다르게 되었다. 숲 속의 요정들이 친구인 소녀의 아버지를 위해 불빛으로 인도한 것이다. 그때부터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는 집 앞의 전나무에 촛불을 켜두고 맞이하는 풍속이 생겨나고, 크리스마스에도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뜻으로 전나무에 촛불을 밝히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의 주인공은 짐과 델리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부부이다. 이 부부는 서로를 마음속 깊이 아끼며 사랑했다. 그러나 형편은 몹시도 가난했다.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이지만 두 사람은 각자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아내 델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금발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 짐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시계가 있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무렵, 델리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 주고 싶어 주머니를 털었다. 그러나 1 달러 87 센트 동전이 전부였다. 델리는 생각다 못해 아끼는 자신의 금발을 잘라 팔아서 남편 짐의 금시계에 걸맞는 시곗줄 하나를 샀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에는 시곗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어 짐이 돌아왔다. 그 아름답게 출렁이던 아내 델리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보고 짐이 깜짝 놀라자, 델리가 말했다.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시곗줄을 사 왔어요.” 그 말에 짐도 안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더니 포장지에 싼 물건을 하나 꺼내 놓았다.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였다. 아내의 출렁이는 아름다운 금발을 빗으라고 남편 짐이 자기가 물려받은 유일한 금시계를 팔아 사 온 것이었다.

The Gift of the Magi

"The Gift of the Magi" by O. Henry is a poignant short story written in the early 20th century, specifically during the early 1900s. The narrative revolves around the themes of love and sacrifice, showcasing the lengths to which two devoted partners are willing to go to express their love for each other despite their financial struggles. The story is a timeless exploration of the true spirit of giving, especially during the Christmas season. The plot centers on Della and Jim, a young couple living in modest circumstances. With only \$1.87 to spend on Christmas gifts, Della decides to sell her long, cherished hair to buy a platinum fob chain for Jim's prized watch. Unbeknownst to her, Jim sells his watch to buy beautiful combs for Della's hair. When they exchange their gifts, both are shocked and saddened to realize the sacrifices they made, yet their love for one another shines through amidst the disappointment. Ultimately, the story emphasizes that the greatest gift is the love and sacrifices made for one another, echoing the wisdom of the magi who brought precious gifts in the biblical tale.

결단의 기도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 10:10)

2.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 부터 떠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3.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왔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또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방황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심으로 믿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세요. 저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살아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전에 나의 생각과 행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

<기도로 동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 한마디는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오네시모 선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교회가 되도록,
2. 재소자 방문을 위한 교도소 방문의 먼길 운전이 항상 안전하도록,
3. 갇힌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되어,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4.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 진정한 오네시모로 변화 되기를,
5. **Korean Community** 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6.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를 섬기는 사역자가 구해지도록,
7.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8. **New Life Ministry** (재소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역자로 변화되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사역)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확장되기를,
9. 한국의 추방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10. 오네시모 선교회 새 비전 “예방 사역”을 위하여
11. 선교회 사역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들을 위해,
12. 오네시모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이사회와 후원회, 그리고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적 평강과 건강을 위해,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성경과 신앙 서적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가족 관계에 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선교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0시 30분)

(재소자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회: 금요일 저녁 5시 30분)



Onesimus Ministry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0

Tel: 714-739-9100

Email: onesimusministry94@gmail.com

www.onesimusministry.org

Est. 1994

Onesimus New Life Ministry: Korea, Japan, Mexico, Colombia
International Humanitarian Exchange Council, CA USA.

Rev. Suk Ki Kim Founder

Rev. John S. Choi President